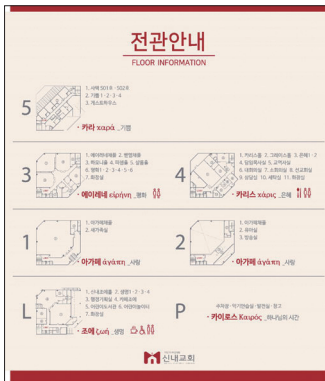


함께 공유하는 따뜻한 공간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교가정생활협회 중경회장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며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교회는 연 면적 1500여 평 규모의 교회를 설계하면서 공간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뚜렷한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새 예배당의 공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1. 대예배실의 좌석 수에 연연하지 말자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몇 석 예배당을 지었느냐? 식당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냐를 묻고 교회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예배실 중심의 공간설계를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예배실 공간을 전체 연 면적의 25% 정도로 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공간을 창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좌석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시원하게,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었다.

2.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다

교회를 새로 지으면 “우리 부서가 사용할 공간이 어디일까?” 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새 예배당을 지어도 우리 부서와 우리 선교회의 공간은 없습니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한 주간에 교직 몇 시간 사용하는 부서를 위해 공간을 지정해 주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공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거의 모든 공간을 시간을 달리하여 모든 교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공용 공간

으로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다. 심지어는 현역 장로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획위원회' 실도 명칭을 회의실로 하여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장로들이 결단을 해 주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상시 출근하는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의 공간 외에 부서별 공간은 없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이 사전에 필요했음을 밝히고 싶다.

3. 층별로 이름을 정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억하도록 하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층을 건축하였는데, 각층마다 다소 생소하지만 헬라어(그리스어) 이름을 부여하였다.

- ① 지하 1층은 카이로스(*καιρός*, 하나님의 시간)라 하였다.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 ② 로비(L)층은 조에(*ζωή*, 생명)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조에홀, 카페 조에, 그리고 L층에 있는 소그룹 방들은 모두 생명1,2,3,4 이렇게 명칭을 붙여 누구나 사용하게 하였다.
- ③ 지상 1층과 2층은 아가페(*ἀγάπη*, 사랑)라 이름하였고 대예배실이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대예배실이 있는 층에 마련된 소그룹실은 사랑1,2,3 등의 이름을 붙였다.
- ④ 3층은 에이레네(*εἰρήνη*, 평화)라 하였는데 교회학교와 찬양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평화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모니홀, 에이레네 채플, 파침홀, 살롬홀, 평화1,2,3,4,5,6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 ⑤ 4층은 카리스(*χάρις*, 은혜)라 이름을 짓고 애찬실이 있는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레이스홀, 은혜1,2,3,4 실 등의 명칭을 붙였다.
- ⑥ 5층은 카라(*χαρά*, 기쁨)라 이름 지었는데, 이 공간은 부목사의 사택 2동과 선교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 5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이다. 김광년